



즉시 배포용: 2020년 6월 7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부재자 투표 용지 제출 기한을 선거 당일까지 연장하는 법안에 서명

*학교 예산 선거의 투표 용지 제출 기한을 연장하는 행정 명령 선포*

*주지사는 이전에 모든 뉴욕 주민이 6월 23일 예비 선거에 부재자 투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행정 명령을 선포하여 모든 뉴욕 주민이 자동적으로 반환 우표가 포함된 부재자 투표 신청서를 수령하도록 보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부재자 투표 용지 제출 기한을 선거 당일까지 연장하는 법안(S.8130-D/A.10516-A)에 서명했습니다. 집계에 포함되기 위해서 예비 선거의 투표 용지는 6월 23일 소인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주지사는 이전에 모든 뉴욕 주민이 6월 23일 예비 선거에 부재자 투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행정 명령(Executive Order)을 선포하여 모든 뉴욕 주민이 자동적으로 반환 우표가 포함된 부재자 투표 신청서를 우편으로 수령하도록 보장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교육청이 진행하는 학교 예산 선거의 투표 용지 제출 기한을 연장하는 행정 명령을 선포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집계에 포함되기 위해서 학교 예산 투표 용지는 교육구별로 6월 9일 오후 5시까지 직접 제출하거나 6월 16일까지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의 세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큰 진전을 이루고 있고 확진자 수가 계속 줄어드는 가운데, 뉴욕 주민은 자신의 건강과 투표권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재자 투표 제출 마감 기한을 연장하는 일은 뉴욕 주민이 다가오는 예비 선거에 부재자 투표라는 방식을 통해 쉽게 투표할 수 있도록 보장한 행정 명령에 이어, 바이러스와 계속 싸우면서도 투표 참여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Zellnor Myrie**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뉴욕 주민 23,000명의 죽음을 목격한 후, 투표라는 헌법적 권리가 팬데믹으로 인해 방해받아서는 안되며, 팬데믹 상황에서도 민주주의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법안의 내용입니다. 뉴욕 주민들은 이 팬데믹 때문에 지도자 선출을 방해받아서는 안됩니다."

우리의 민주주의에 참여하는 것은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를 이끌 수 있는 지도자를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Aravella Simotas**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나 선거가 공평하고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점에 동의할 것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는 위대한 뉴욕주에서의 선거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재검토해야 했습니다. 또한 정치적 차이를 제쳐두고 우리 모두에 대해 생각하면서 간단한 질문에 대답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더 완벽하게 단합할 수 있습니까? 부재자 투표 참여를 확대하고 뉴욕 주민들이 집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분명한 대답이었지만 도전적인 노력이었습니다. 저는 더 나아가 우리가 올해 만들어낸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행정 명령으로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며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리며, 우리가 앞으로 진전하는 가운데 영구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법제화하는 데 협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엑셀시어."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http://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mailto: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